

농경사회에서 도시문명으로: 고대 서아시아의 사례

Akira Tsuneki(저)* · 강후구(역)**

— | 목 차 | —

들어가는 글

I. 용어 정의: 도시

II. 현대 식량 문제로 판단한 도시의 본질적 요소

III.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도시 등장 메커니즘

IV.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주장들

V. 신석기 시대 거대 지점과 도시화 과정

들어가는 글

농경사회의 발달 이후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도시 문명의 탄생이었다. 인류사회에 일어난 새로운 운동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혁신과 같은 움직임이 도시에서 일어났다. 도시는 고대, 중세 그리고 현대에 계속하여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도시의 역동성은 거대한 변혁과 혁신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도시는 무엇이며, 도시들은 언제 어떻게 인류사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I. 용어 정의: 도시

도시의 정의는 다양하다. 막스 베버(1956)로 대표되는 유럽학계에서는 현대 정치공학과 사회학의 발달 배경 하에 도시를 자치성과 자유가 있는 공동사회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공동사회”가 유럽에 등장하게 된 것은 시민사회가 변성한 중세 시대이며 그 시기 나타난 도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그 도시”와 다르다. 심지어 시장, 법원, 자유 시민이 있지만, 우리는 수백 명이 거주하는 그 마을을 도시로 칭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 시민도 없고 자치권도 없지만 수십만이 거주하는 공동사회를 도시로 칭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도시로 칭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는 큰 정착

* 쓰쿠바대학교(University of Tsukuba) 교수

** 서울 장신대학교 교수 / hoogoo7008@gmail.com

지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큰 정착지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주거를 위하여 다양한 인공적인 시설들을 발견할 것이다. 자연 속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한 촌락과 대조적으로 도시는 인간이 만든 인공적 공간에 의하여 건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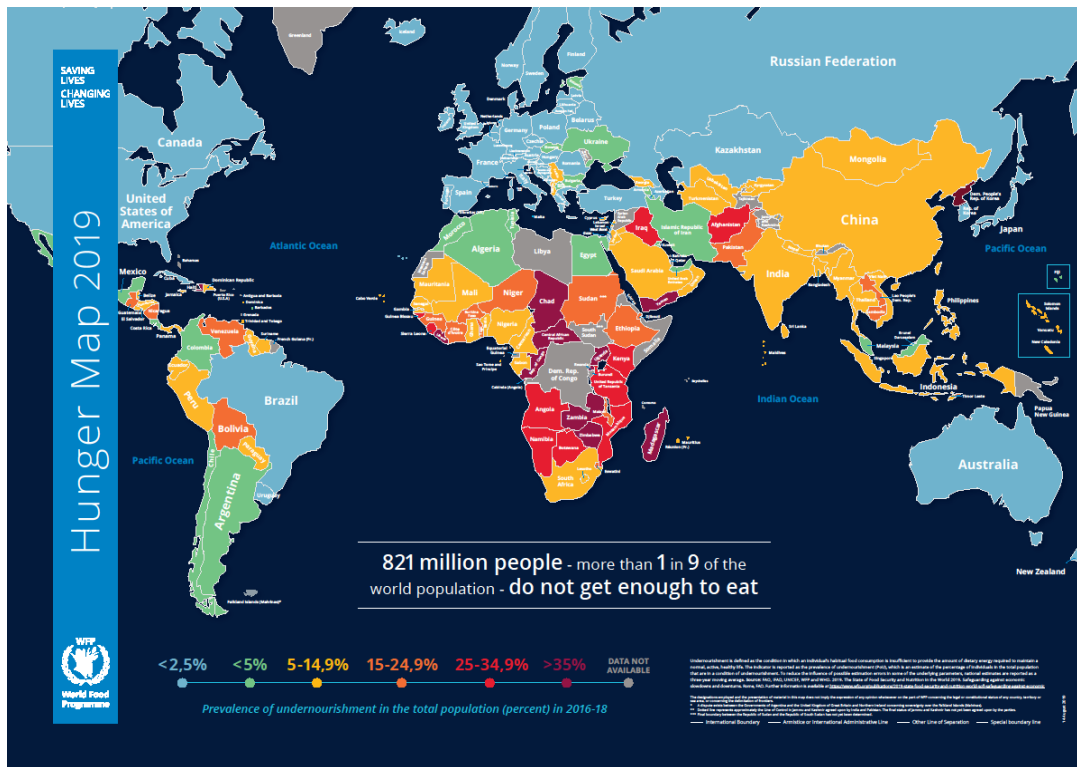
인류는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며 수백 명이 넘지 않는 집단 내에서 보냈다. 제한된 한 공간에 집중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도시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부정적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많은 양의 쓰레기, 먼지, 배설물은 비위생적 환경 및 다양한 질병 그리고 전염병을 유발시킨다. 자연적 재앙 또한 도시 구역 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도시의 삶은 개인과 인류의 생존에 극도로 위협할 수 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기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도시의 삶은 인류에게 극도로 비자연적인 생활 형태이다. 그렇다면 한다면, 사람들은 왜 도시를 만들었는가? 나는 이 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도시의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고학자들은 항상 발굴하고 있는 장소가 도시일까 생각하며, 그들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정의보다는 실제적인 정의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도시 혁명”을 제안하였던 고든 차일드(1950: 9-16)는 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도시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1) 많은 인구, 2) 노동과 직업의 사회적 세분화, 3) 조세 징수 체계, 4) 기념비적 건물들, 5)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상류계층의 존재, 6) 쓰기를 포함한 기록 체계, 7) 예측 과학, 8) 예술, 9) 무역, 10) 전문 장인. 이집트 학자인 만프레드 비탁(1979: 103)은 도시[“마을(town)”이라는 용어 사용]를 1) 2,000명이 넘는 인구, 2) 밀집 형태의 정착 3) 주거지 분리, 4) 지역의 행정, 상업, 법정, 교통 중심지, 5) 비농업 집단, 6) 산업, 수공업, 물품, 가계의 밀집, 7) 노동, 전문직, 사회 계층의 분화, 8) 종교 중심지, 9) 방어 중심지를 갖춘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이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도시는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정의들은 도시를 만드는 본질적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약간 우회하는 면이 있지만, 우리는 현대의 식량 문제를 바탕으로 도시의 본질을 논의코자 한다.

II. 현대 식량 문제로 판단한 도시의 본질적 요소

산업 구조와 식량 상황 간의 관계를 연구하던 사회학, 역사학 연구자들은 이상한 모순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식량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9분의 1이 넘는 사람들, 약 8억의 인구가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 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1〉, UN WFP 2019). 반대로, 발전된 국가와 도시 주거민들은 기아로 거의 고통받지 않는다(Fujita 1993).



〈그림 1〉 2019년 기근 지도

더구나, 도시 지역과 농경 마을간 식량 상황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심각한 가뭄이 7백만 명이 넘는 이디오피아 농부들에게 영향을 미쳐 먼 지역까지 굶주림의 충격을 받았던 당시,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화려한 삶이 존재하였다. 인류사에서 가장 극심한 기아중 하나가 1959년부터 1961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대도약 운동 기간에 일어났는데, 2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굶주림으로 죽었다. 이들은 대부분 스촨, 안휘와 같은 농업이 번성하였던 곳의 거주민이다. 상하이, 베이징, 톈진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매우 적은 기아가 알려졌다(Nishizawa 1999).

유럽 또한 1840년대 아일랜드 감자 기근과 같은 많은 유명한 기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인구의 8분이 1이 넘는 백만 명 넘는 사람이 기아와 장티푸스 열병, 이질과 같은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러는 사이, 수십만 톤의 밀과 귀리가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출되었다(Hattori 1999).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일본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이 현대 시대 초, 에도 시대에 세 개의 주요 기근-교호, 덴메이, 덴포 기근-이 있었다. 교호 기근시 토호쿠 지역에서 30만명의 농부가 아사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에도(고대 도쿄), 교토, 오사카와 같은 큰 도시의 사람들은 자주 대연회를 즐겼다(Harada 1999).

이 기근들의 역사는 기근이 생겼을 때, 식량을 생산하는 미개발 국가와 먼 지역 마을들의 농민들은 굶는

반면,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도시 거주민들은 굶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왜 이러한 모순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는 개발 국가와 도시들이 미개발 국가와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약탈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제 도시, 강제 구입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을 지닌 이와 같은 약탈 구조는 도시의 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양식은 수확이 좋은 해와 기근이 있는 해에 도시의 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양식이 보장됨을 보증한다.

그러므로, 농경촌락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은 수확이 좋은 시기에는 유용하지만, 수확이 좋지 못한 해에 농경 촌락민들은 굶게 된다. 더구나 도시들은 농경촌락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 곡식뿐만 아니라 사치품을 위한 판매 가능한 상업품을 생산하기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농경촌락의 생사는 도시들의 선택과 그들의 의도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 약탈하는 구조와 조직을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힘이 있는 곳이 “도시”이다. 우리는 큰 규모의 힘 구조를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전언하면, 도시 등장에 대한 질문은 곧 왜 인간사회에 큰 규모의 힘이 등장하게 되었는가의 질문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규모의 힘을 허용하였는가? 어느 누구도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힘의 존재를 허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우리가 왜 국가 또는 지방 관청과 같은 세력 구조에 세금을 내고 법을 따르는지, 그 이유는 반면에 평화와 질서, 교육, 복지, 쓰레기 수거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형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평화와 질서를 위한 안전보장 서비스이며 그 다음은 식량을 포함한 공급물자 조달이다. 사회 보안 유지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일은 세력 등장 추구의 주요한 부분이 되며, 이로 인하여 도시가 등장할 수 있다.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들에서 도시의 이름을 표현하는 용어는 매우 임시적이다. 고대 그리스어로 “폴리스”는 요새를 의미한다. 함부르크, 아우그스부르크 등과 같은 도시들의 독일어 “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와 같은 불어 “부르”, 맨체스터, 로체스터와 같은 영어의 “체스터”, 뇨고로드와 크레믈린과 같은 “고로드” 등 이 모두는 요새의 의미를 가리킨다. 힌두어 “푸라”와 중국어 “비” 또는 “첵쉬” 또한 요새를 의미한다.

전언하면, 요새는 단어 “도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이것은 안전이 도시의 필수 요소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도시는 힘과 동일하며 힘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안전 유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4천 년대 후반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등장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고고학 증거를 한번 살펴보자.

Ⅲ.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도시 등장의 메커니즘

최초로 도시가 나타난 것은 기원전 4천 년대 말기 메소포타미아 남부 충적 평원이었다고 생각되었다. 그곳의 충적 평원은 무엇인가? 메소포타미아 남부 충적 평원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현재의 바그다드는 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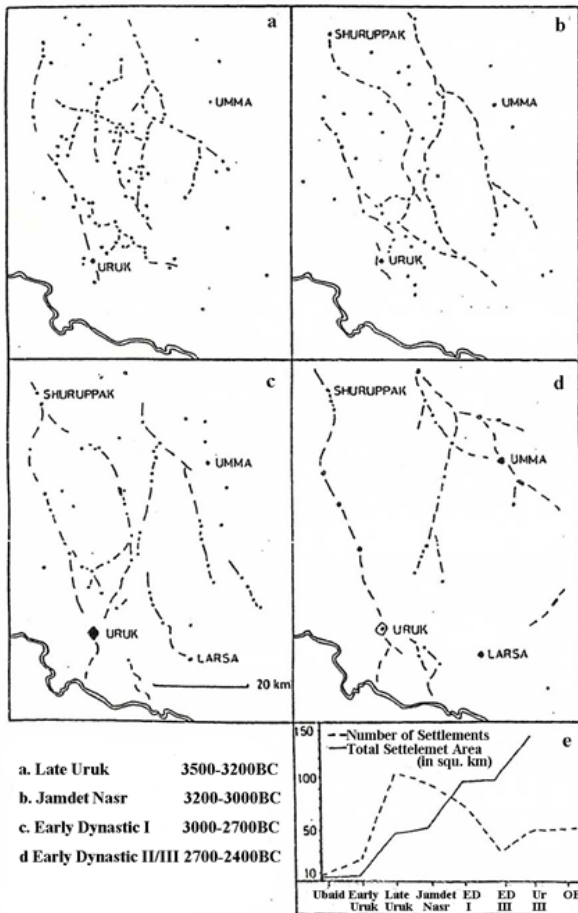
해안 약 500킬로미터 떨어진 티그리스 강둑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나 그 고도는 해발 30~35미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1킬로미터당 6~7센티미터의 경사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경사는 해안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더 완만해 지는데 이유는 걸프 해안 200킬로미터에서는 고도가 단지 몇 미터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연하면,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충적 평원에서는 매우 넓은 수평지가 펼쳐진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로를 지나기에, 범람 발생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에 치명적이었다.

심지어 범람으로 인하여 자주 피해를 입어 사람들이 도망가기를 원할 때도 충적 평원은 일상생활 용수와 농업용 관개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 지역의 강수량은 연 100밀리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메소포타미아 남부 충적 평원에는 오직 물, 햇볕 그리고 진흙만이 존재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 이를테면 곡식수확을 위한 부싯돌 낫, 곡식을 갈기 위한 현무암, 가옥 기초

용 석회암, 건축 재료용 나무, 무기와 다양한 도구용 금속, 액세서리와 공예품용 보석등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시리아, 아나톨리아, 이란 평원 등 외부로부터 수입되어야 했다.

이러한 극심한 자연 환경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살지 않았음을 의미하였다. 처음으로 인간의 정착을 보여주는 우바이드 문화가 기원전 7천 년대 말기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에 등장하였다. 이 지역의 습지 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구릉지가 나타났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또는 자그로스 산지 자락의 신석기인들이 이 구릉지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관개 기술들을 가져왔다.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장소 중 하나는 텔 엘-유에일리(Tell el 'Oueili)로, 사람들은 유프라테스강의 물고기와 대추야자를 먹었고 이외에 밀과 보리를 경작하였으며 양과 염소도 길렀다(Huot 1992).

로버트 맥아담스와 한스 니센은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착 형태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실행하였다(Adams and Nissen 1972). 우바이드 시기 18개의 조



〈그림 2〉 a~e. 시기별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정착 형태 (Nissen 1988 Fig. 20에서 수정)

조그마한 정착지들은 단지 몇 헥타아르 크기로 강을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의 우룩 시기 특별히 우룩 시기 말기(기원전 3500~3200년)에, 지표 조사된 지역의 정착지가 108개로 증가하였다. 이 지역의 중심지인 우룩은 50헥타아르가 넘는 크기로 커진 반면 다른 장소들의 크기는 단지 몇 헥타아르에 이른다. 오직 우룩만이 빠르게 커졌고 “도시”가 되었다(그림 2:a).

우룩 말기가 끝날 무렵 우룩의 에안나 신전 지역에서는 놀라운 공동 건물들이 발견되었다(그림 3)). 큰 공동 건물 단지는 한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우룩 말기 끝날 시기 추정되는 우룩의 크기는 약 500 헥타아르에 이른다(그림 4)).



〈그림 3〉 우룩 말기의 원뿔 모자이크 단면 재건
(Oates and Oates 1976: 34)



〈그림 4〉 우룩 도면(Lloyd 1979)

이후 켈메트 나스르 시기(기원전 3200~3000년), 제1~2 왕조 초기(기원전 3000~2700년), 제 3왕조 초기(기원전 2700~2400)에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정착 지점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그림 2:b~d)). 그러나 수십 헥타아르가 넘는 큰 정착지들의 숫자는 증가하였고 이 지역의 전체 정착지역은 증가하였다(그림 2:e)). 달리 말하면 조그마한 촌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정착지를 떠나 큰 정착지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연하면, 큰 정착지들은 울타리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착 형태 변화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시기의 수 백 년의 기간 동안 인간 집단간의 부와 가난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조그마한 촌락에서는 더 이상 안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첫 도시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이 지역의 자연 환경에 주목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지역에는 오직 물, 햇볕 그리고 진흙만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생계 전략은 충분한 유용 자원으로 생계 가능하였던 이웃 지역과는 매우 달랐다.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필요 물자를 수입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계 전략을 고안해야만 했다.

만약 그들이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자원인 물, 햇볕, 진흙으로 밀과 보리 생산을 촉진케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대규모의 관개 농업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건조 농업보다 면적당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잉여 곡식물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짚으로 양과 염소를 길렀고, 양모로부터 매우 높은 질의 천을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천연 자원을 수입하여 가공하였고 양질의 수공업품을 만들어 수출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높은 수준의 단일 상업 생산과 교역 체계 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부의 불균형적 분배와 인간 집단간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야기 시켰다.

주변지역과의 무역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들에게 생과 사의 문제였다. 우리는 물자와 무역 관계를 위하여 사용된 문구 즉 표시와 인장으로 불려지는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진흙 표시와 인장은 우рук 시기 북부 메소포타미아, 남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아나톨리아, 이란 고원 지역의 장소들에서 발굴되었다. 이후 논의하겠지만, 표시와 인장 문구 체계는 도상 토판으로, 마침내 췌기문자 문서로 발전하였다.

IV.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주장들

수십 년 동안 기원전 4천 년대 말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층적 평지는 인류사의 도시들의 등장의 무대로 생각되었다. 특별히 초기 도시들의 등장과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주변 지역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한 길레르모 알가제(Guilermo Algaze)의 “우рук 세계 체계”(1993) 이후, 이 가설은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발굴을 근거로 도시의 등장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도시화가 기원전 5천년대 말기(석동기 제 2기 말기)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새로운 가설은 도시들의 등장이 기존 이론보다 거의 천 년 더 일찍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가설의 가장 중요한 발굴 결과는 시리아 북동쪽 카부르 지류에 위치한 텔 브락에서 나온 것이다(Oates et al. 2007). 이 결과들을 논의해 보자.

텔 브락은 큰 고고학적 장소이며 주요 정착 언덕은 40헥타르 크기이고, 주변 평지보다 40미터 높다(그림 5). 만약 우리가 주변의 저지대까지 범위를 포함한다면 전체 정착 지역은 300 헥타르가 넘는다(Oates et al. 2007: 586). 이 지점은 1930년대 이후 발굴되었으나 새로운 증거들은 2000년대 이후 보고되었다. TW 지역의 새로운 발굴은 석동기 제2기 말기~제4기 시대(기원전 4200~3600년)의 것인 일련의 공공 건물들을

드러났다. 가장 아래의 지층 20에서, 탑 같은 구조물과 1.85미터 너비의 벽을 지닌 큰 공공 건물 모서리가 발견되었다.

발굴자들은 지층 19와 18에서, “산업”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적색 벽돌 건물들”을 발견하였다. 이 지역에서 독특한 흑요석과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항완 (chalice)”과 사자 모양 인장, “왕권” 상징을 포함하는 많은 양의 진흙 인장들이 발견되었다. 적어도 두 경우의 인장은 한 개 이상의 인장 자국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이중 인장은 실제적 조직 복잡성에 대한 증거임을 가리킬 수 있다(Oates et al. 2007: 593). 이러한 종류의 공동 건물들과 고급 물품들은 TW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남쪽 300미터 떨어진 CH 지역에서도 발견되는데 그것들은 우바이드 시기 말(기원전 약 4400년)의 것이다.



〈그림 5〉 언덕모양의 텔 브락(2010 필자 촬영)

더구나, 1930년대에 맥스 마로완(Max Marrowan)에 의하여 발견된 “눈 신전(Eye temple)”과 눈-신상들(eye-idols)은 같은 카부르 지류 지역에 위치한 텔 하무카르의 새로운 발굴 증거(Reichel 2002)에 근거하여 기원전 5천 년대 말기와 4천 년대 초기의 것임이 분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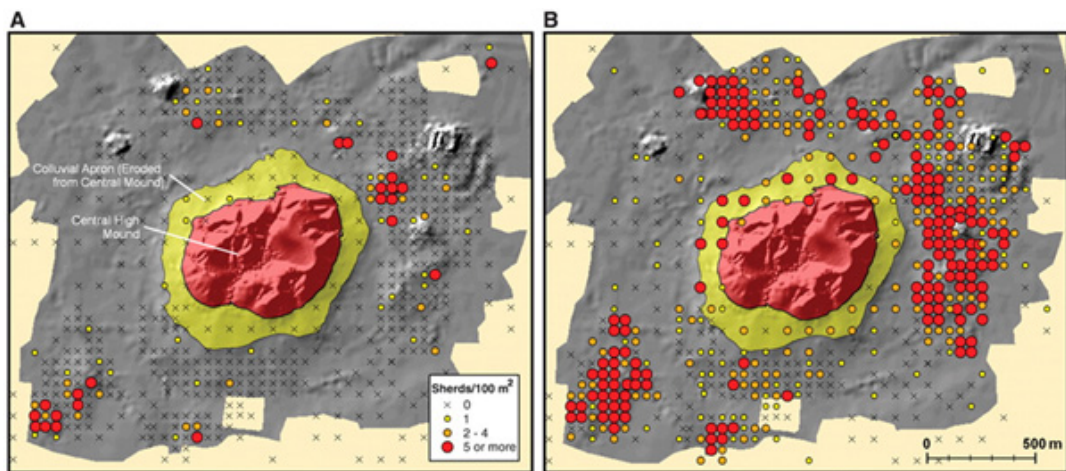
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조안 오테스와 그녀의 동료들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 기원전 5천 년대 말경에 기념비적 건물, 산업화, 고급 상품 등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도시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이른 도시들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우рук 세계 체계의 확장 모델은 현재 수정해야할 단계에 와있다.

텔 브락의 발굴, 원격 탐사, 자세한 지표조사 결과로부터 도시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가설이 대두되었다. 각 시대의 정착 크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제이슨 우르크와 동료들은 텔 브락과 그 주변의 대규모 지표 조사를 행하였다(Ur et al. 2007). 그들은 텔 브락과 그 주변 지역을 가로 세로 10 미터 정방형으로 나누고 각 정방형에서 나온 도편의 수를 후기 석동기 제 2기(기원전 4200~3900년), 후기 석동기 제 3기~4기(기원전 3900~3400년) 시대를 따라 나누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은 텔 브락의 도시 성장은 후기 석동기 제 2시기에 시작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시기의 토기가 지점 중앙 언덕과 중앙 언덕에서 일반적으로 200~500미터 떨어진 외곽 지역의 2-4 헥타아르 크기의 여섯 개의 개별 지역군에서 발견되었다(〈그림 6A〉). 그들은 정착 지역이 총 55 헥타아르에 이른 것으로 계산하였다. 후기 석동기 제 3기 시기동안 외곽 마을 정착이 안쪽으로 확장하였고 이전에 정착하지 않은 많은 지역이 그 시기 정착되었다. 중앙 언덕은 큰 산업 구조물과 적어도 한 개의 정교하게 장식된 신전을 지나게 되었으며, 후기 석동기 시대 제 3기와 제 4기의 정착 지역은 총 130 헥타아르로 늘어났다(〈그림 6B〉).

그들은 지표면의 많은 양의 도편들이 정착 밀집성의 증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정착 밀집성이 공간의 확장을 따라 증가하였다. 성장 패턴은 동시적으로 안쪽에서의 정착 확장과 함께 나타난, 밀집된 정착 증가의 하나였고, 이 형태는 텔 브락의 최초 성장에서 비중앙화된 과정을 위하여 좀 더 중대한 역할과 중앙화된 권력의 중요성 약화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도시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독립적이고도 계급에 속하지 않은 무리의 행동의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이것은 또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화의 연구는 도시들의 기원에 대한 다중 모델들을 수용해야 함을 가리킨다.



〈그림 6〉 A-B. 텔 브락의 100 평방미터당 표면 도편 분포
(A : 후기 석동기 제2기, B : 후기 석동기 제3기. Ur. et al. 2007: fig.1)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으로부터의 주장들은 서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의 발생의 이유와 배경을 재고해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대규모의 관개 농업과 무역 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사람들은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도시들이 독립적으로 등장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보다 더 이른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들의 등장 이유와 배경을 찾아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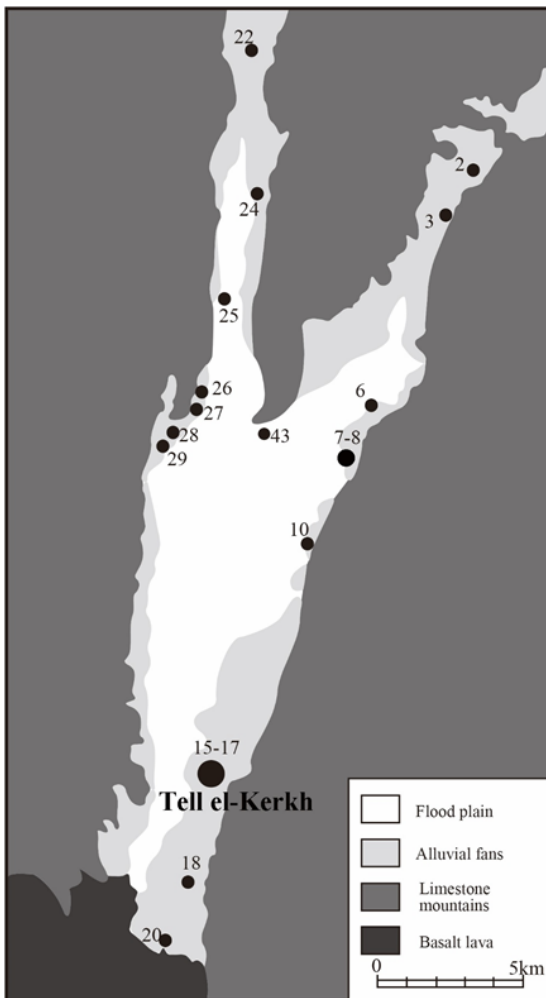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큰 건조 농업 곡창 지대가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 시대에 제국의 경제를 지탱해 주었다는 점은 잘 알려졌다. 하비 바이스는 동일한 건조 농업 곡창 지대가 기원전 3천 년대 동안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 그가 “건조 농업 도시들”이라고 부른 - 대규모 도시 - 국가의 번영을 위해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Weiss 1986). 우리는 심지어 기원전 5천 년대와 4천 년대에도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평원에서 밀과 보리의 수확량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텔 브락, 텔 하루카르와 같은 큰 중심지들이 이 거대한 건조 농업 곡창 지대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넓은 곡창 지대의 높은 수확량을 바탕으로 기원전 5천 년대 말기까지 지방민과 인간 집단 사이에 빈부 격차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큰 도시와 같은 정착지의 형성을 부추겼다.

V. 신석기 시대 거대 지점와 도시화 과정

위에서 우리가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도시화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가설이 있다. 하나는 기원전 4천 년대 말기 관개 농업을 기반을 둔 메소포타미아 남부 가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원전 5천 년대 말경 광범위한 건조 농업에 기반을 둔 메소포타미아 북쪽 가설이다. 현재 이 가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우리가 어느 가설을 존중하든, 도시화는 농경사회의 발전과 함께 일어났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밀, 보리, 콩 생산에 기반을 둔 농경 사회가 서아시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일찍, 시리아, 아나톨리아 남동 지역을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 북쪽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최근 고고학적 조사는 소위 “황금 삼각지”라 불리는 시리아 북부 지역, 아나톨리아 남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북서 지역을 잇는 구역이 농경 사회의 기원 연구에 가장 중요한 지역임을 지시하고 있다(Kozłowski and Aurenche 2005). 덧붙이자면, 레반트에서부터 북 시리아를 지나 아나톨리아 남동 지역에 10 헥타르가 넘는 거대 지점이라 불리는 큰 정착지들이 이른 시기의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 후반 말기, 기원전 8천년기에 나타났다(Rollefson 1987).

주목할 만한 예들은 남부 레반트에서는 아인 가잘(Rollefson 1987; Rollefson and Simmons 1988), 바스타(Gebel, Muheisen, and Nissen 1988; Nissen, Muheisen, and Gebel 1991), 와디 슈에임(Zeuner 1957), 베이사문(Lechevallier 1978), 북부 레반트에서는 텔 아부 후레브라(Moore et al. 2000), 텔 할룰라(Molist 1996), 텔 엘-케르크(Tsuneki et al. 1997, 1998, 1999, 2000, 2011)가 있다. 아나톨리아 중앙지



〈그림 7〉 북서 시리아 지역 루즈 분지내
1c-2d시기 루즈의 정착 형태

역에도 거대 지점들의 예가 있는데, 아시클리 휴욕(Esin and Harmanakaya 1999), 차탈 휴욕(Hodder 1996, 2007)이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역에는 신석기 시대의 거대 지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레반트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 거대 지점의 등장을 고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어왔다. 이 정착지들 중 몇은, 이후의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작은 도시들과 그 크기가 맞먹는다. 여기서 나는 쓰쿠바 대학교 팀이 오랫동안 조사해왔던 신석기 시대 거대 지점인 텔 엘-케르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텔 엘-케르크는 북서 시리아지역에 위치한 남북 37킬로미터, 동서로 2~7 킬로미터 크기의 루즈 분지로 불리는 조그만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쓰쿠바 대학교는 1990년에서 1992년간 광범위한 지표조사와, 분지 지역 몇 지점에서의 시험 발굴을 통하여 37개의 인공 언덕 거주지를 발견하였다. 37개의 인공 거주지 중 22개가 신석기 시대 유물을 지녔다. 이 분지 지역에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주민이 정착한 시기는 기원전 약 8700년 경으로 토기이전 신석기 시대 후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8천 년대 말경까지, 신석기 시대 정착지 크기에 극심한 차

이가 나타났다.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 후반 말기경에 텔 엘-케르크가 이 분지에서 가장 큰 정착지가 되었고, 이 장소는 이 지역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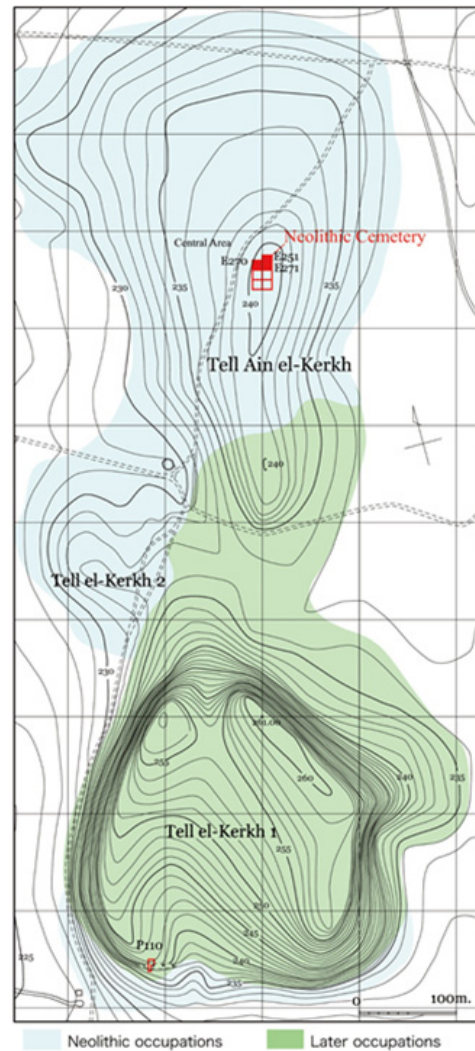
텔 엘-케르크는 남북 약 1킬로미터, 동서 400미터 크기로 일련의 세 개의 인공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8〉). 비록 텔 엘-케르크 1의 남쪽 끝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유물에 의하여 덮여졌지만, 텔 엘-케르크 2와 텔 아인 엘-케르크의 북반부는 순전히 신석기 시대 문화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쓰쿠바 대학교와 시리아 문화 및 박물관 관리청과의 협력팀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초기 농업사회에서 복합사회 형성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텔 엘-케르크에서 광범위한 발굴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거주

지의 다양한 부분에 발굴지를 택하여 각 시대별로 정착지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게 되었다:

-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 후반 초기
(기원전 8700~8300년) - 1 헥타르 미만
-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 후반 말기
(기원전 7600~7000년) - 약 16 헥타르
- 토기 신석기 시대 초기
(기원전 7000~6600년) - 약 10 헥타르
- 토기 신석기 시대 중기
(기원전 6600~6100년) - 약 5-6 헥타르
- 토기 신석기 시대 말기
(기원전 6100~5800년) - 약 1 헥타르

우리는 케르크의 신석기 시대 정착 역사를 다음과 같이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 후반 초기에 사람들이 루즈 분지에서 조그마한 영구 농경 촌락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수백 년간의 휴지기 이후, 그 농경 촌락은 빠르게 큰 규모의 정착지로 확장되어 신석기 시대에 서아시아에서 거대한 지점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후 정착지는 기원전 7천 년대 대부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분지에서 가장 큰 정착지가 되었다. 기원전 7천 년대 말경에 이르러, 정착지 크기는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기원전 6천 년대 초기에 쇠퇴하였다(세부 사항은 Tsuneki 2012를 보라).

토기이전 신석기시대 후반 말기부터 토기 신석기시대 중기까지 케르크의 신석기시대 정착지는 규모면에서 클 뿐만 아니라 집단저장, 집단 묘지, 고도의 기술, 장거리 무역, 소유권 개념, 많은 제의 행위를 포함하는 복합 사회였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사회가 그저 단순한 농경 촌락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림 8〉 북서 시리아 지역
텔 엘-케르크 대규모 거주 단지



〈그림 9〉 텔 엘-케르크 발굴에서 발견된 다양한 인장들



〈그림 10〉 텔 엘-케르크에서 발견된 진흙 인장

〈그림 11〉 서체 발전 과정

나는 특별히 사회에서 소유권의 발전, 물품 저장, 경제 차이를 가리키는 인장 체계에 주목하였다. 텔 엘-케르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인장은 가장 큰 정착지가 등장한 시기인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 후반 말기에 나타나며, 전체 약 130개의 많은 양의 인장이 이후 토기 신석기 시대에도 발견되었다(〈그림 9〉). 몇 개의 진흙 인장은 표면에 인장 자국을 지녔고 뒤면에는 바구니와 끈 매듭 자국을 지닌 채 발견되었다(〈그림 10〉). 따라서 인장 체계는 고가치의 물품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봉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조그맣게 찍힌 자국(표시들)을 지닌 진흙 또한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인장과 진흙인을 통하여 저장된 물품의 행정과 무역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인장 체계는 물품의 소유권의 존재와 행정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권리, 이자, 경제 불균형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3000년 이상의 기간에 일어난, 신석기 시대의 인장 체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필기 체계인 켈기 문자로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다(〈그림 11〉).

인장 체계에 덧붙여, 우리는 또한 텔 엘-케르크의 신석기 시대 거대 지점들로부터 이후의 도시 사회들로 이어지는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발열-기술, 허위 터키석, 집단 묘지 등은 이후 도시 문명화 시기에 금속, 전문화된 장인 예술, 매장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양한 “도시 요소들”의 기원이 이 신석기 시대 거대 지점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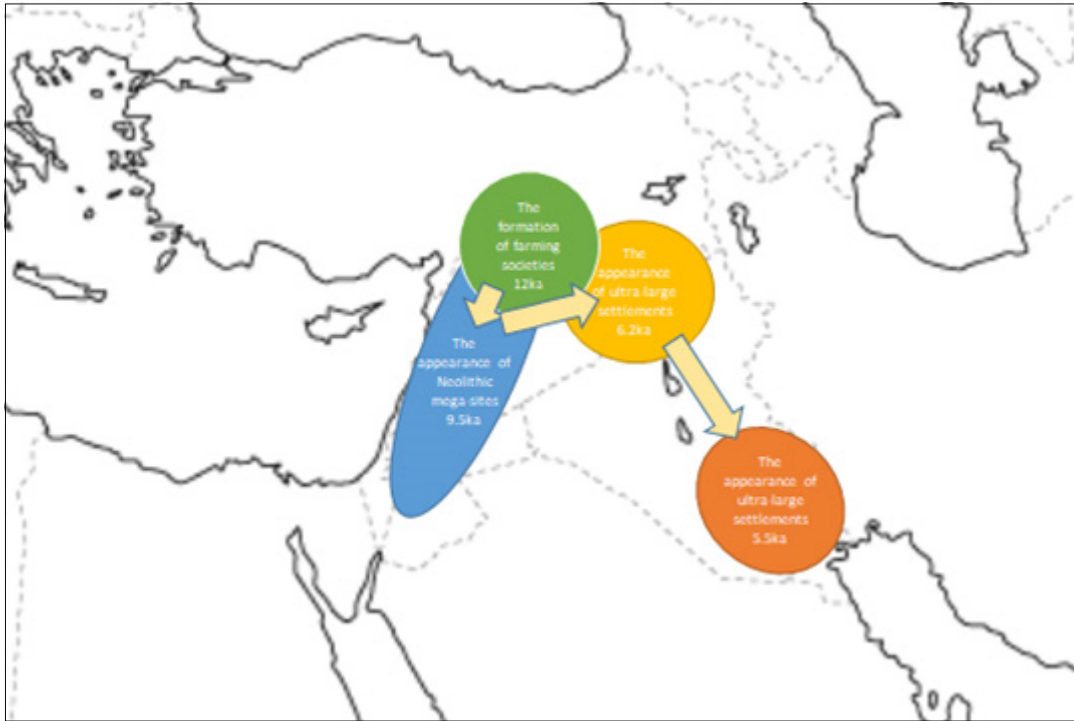
우리는 세계 어떤 다른 지역보다 더 이른 시기의 매우 큰 정착지 또는 도시들의 형성을 서아시아 선사 시대에서 목격할 수 있다. 왜 이곳인가? 갱신세에서 충적세로의 전환기에 나타난 정착형태의 삶 구성과 농경 사회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더 일찍이 이루어졌다. 이 농경사회는 경제적 차이를 부추겼고 이후, 경제적 차이는 사회 분화를 낳았다. 사회 분화는 극심해져서 사회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조그마한 정착지 수준에서 그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도시가 탄생하였다. 상류계층 인들이 도시내 안전과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함에 따라, 사람들은 상류층의 권력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들의 등장으로의 사회 변화 과정에서, 정착의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도시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전연한 바와 같이, 원초적 의미의 “도시의 요소들”은 이미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 후반 사회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원초적 이미지는 곧 바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 과정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 기원전 10,000년 이후 시리아 북부와 아나톨리아 남동부 지역의 농경 사회의 형성
- 기원전 8천 년대 말기 레반트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10 헥타르가 넘는 신석기 시대 거대 도시들의 등장
- 기원전 5천 년대 말기 메소포타미아 북쪽지역의 공공건물을 지닌 매우 큰 정착지의 등장
- 기원전 4천 년대 말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충적지에서 기념비적 건물을 가진 매우 큰 정착지의 등장(〈그림 12〉)

이들 가운데, (3)과 (4)의 매우 큰 정착지들을 도시로 일컫는데 주저하는 고고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레반트와 아나톨리아의 신석기 시대 정착지들은 원초적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준비하였으며 우리는 그들의

기여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대 서아시아의 도시의 등장은 농경사회의 시작에서 시작된 긴 역사적 과정의 결과이며, 각 지역들은 도시 사회 형성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12〉 서아시아 도시들의 등장 과정

* 이 글은 『東洋學』 편집심사 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논고입니다.

